

가을의 길목에서

In Autumn

文淑卿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문
by Moon Suk-Kyeong

이 가을의 여유로움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를 꿈꾸게 한다.

이 가을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숙하게 한다.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이는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 가을의 길목에서 우리 모두 잠시 쉬었다 가자.

해마다 맞이하는 가을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련만 그 느낌
깊이 사뭇 다른 건 훌쩍 가 버린 나이 탓만은 아닐게다.

저 가슴 속 깊은 곳에 일렁이는 작은 분노와 회한은 어쩌면
나와 나의 것들에 대한 진한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

우린 왜 늘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야만 할까?

“빨리 빨리”라는 말을 입
에 달고서 성실한 사람을 무
능력한 사람으로 몰아 세우
고 한탕주의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소신 것 일하기보다
는 책임 회피와 무사안일에
젖어서 공익보다는 사리사
욕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

이렇듯 비 상식적인 행위
가 오히려 상식이 되어 버린 우리의 생활은 도덕성 부재가
가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미덕이 되어 버렸다.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팽창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
하고 경제적인 풍요는 마음의 풍요를 몰아내고 끝없는 욕망
은 우리를 병들게 했다.

적당주의와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의 사회는
서로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이렇듯 여과되
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엄청난 인재의 부산물을 탄생시킴으로
우리 모두를 경악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이 사건들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모든 일
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건
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수치심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건축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에 의문을 가

지고 사고하며 상상하는 창작 활동이라 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가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얼룩진 처참한 몰골이라면 건축의 미래는 참담하기만 한게 아닌가.

그렇다고 자기 항변마저 없는 건 아니다.

건축주의 몰 이해와 잘못된 관행, 일관성 없는 건축 행정 등 수 많은 고충 속에서 분노와 몇 차례의 좌절은 순수한 건축에 대한 감동을 퇴색시키고 또한 건축에 대한 애정과의 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되돌아 오는 건 오히려 허망함 뿐이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기 보단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책임질 줄 아는 도덕심을 기대하자.

책임을 기피하고 과오를 감추려다 더 깊이 병들고 있는 것을 모르는 무지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브레이크 파열로 멈출 수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며 좌충우돌로 모두 함께 파멸하는 시행착오는 더 이상 겪지 말자.

우린 가끔 시공자와 설계로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다.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워 상대방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더 많은 과오를 자초하지는 않았는지?

보다 나은 건축 문화를 위하여 우린 서로 얼마나 노력하고 양보할 수 있는지?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쉽게 평안함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서정주님의 쇠구처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새 소쩍새는 울었다는데.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가슴 저미는 감동과 후손에 길이 남을 작품을 꿈꾸며 밤을 지세운 적도 있지 않는가?

우린 타인의 잘못에 비판적인 의식보다는 자기 것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상실된 도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무주리조트를 다녀 왔다.

세미나 및 단합 대회라는 명분이긴 하였지만 일상에서의 탈출은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이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가을의 정취를 감상하기엔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다. 하루하루에 쫓기어 미처 계절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어쩔 수 없는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은 몇 해 동안 느끼지 못한 가을의 정취를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산에 펼쳐진 울긋불긋한 단풍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황금 벌판의 풍요로움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저 고운 빛깔의 단풍처럼 모두가 자기의 색깔에 충실하고 서로 어우러져 오색 찬란한 빛깔을 연출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맑고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이 가을의 여유로움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를 꿈꾸게 한다.

이 가을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숙하게 한다.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이는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 가을의 길목에서 우리 모두 잠시 쉬었다 가자.